

등록 1990년 1월 16일 등록번호 부산라·01159 발행 2012년 7월 1일 정가 5000원

시민시대

통권 333호

7
2012

A journal exploring
the frontiers of monthly magazine



국제적인 '和의 文化' 전도사
인간자연과학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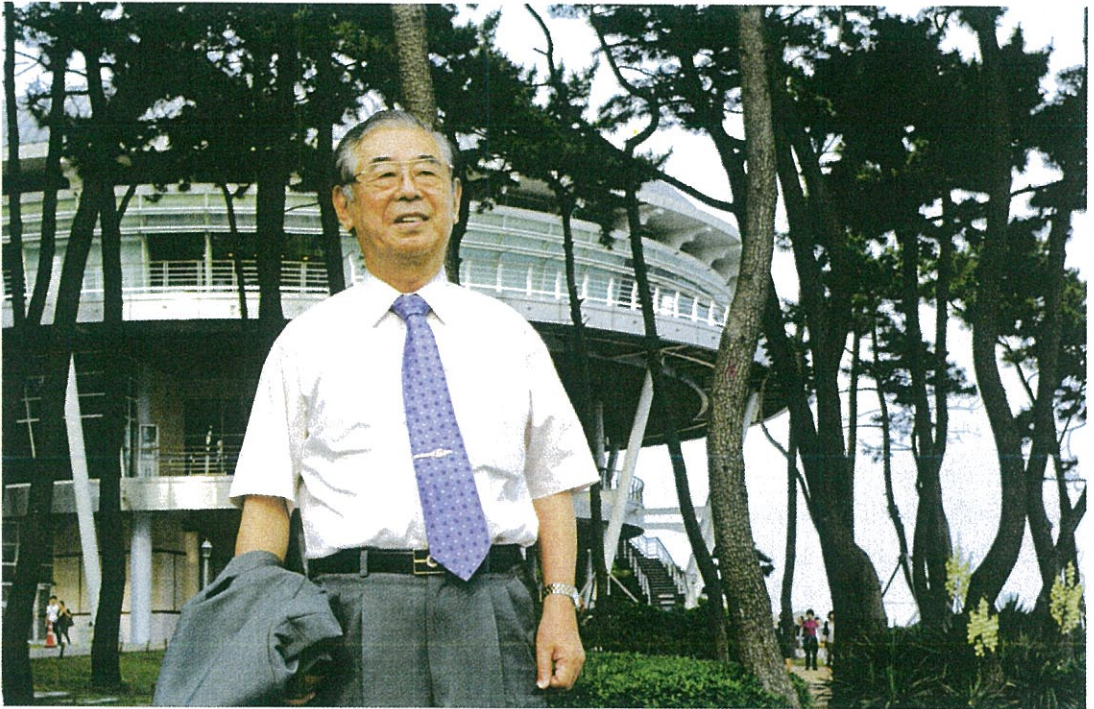
고마츠 아키오(小松昭夫) 이사장



국제적인 ‘和의 文化’ 전도사

재단법인 인간자연과학연구소

고마츠 아키오(小松昭夫) 이사장



▲ 2005 APEC 본회의장이었던 해운대의 누리마루 앞에 선 고마츠 이사장

시네마현 마츠에의 괴짜 기업인

고마츠 이사장은 일본 시마네(島根)현의 마츠에(松江)에 소재한 고마츠(小松)전기주식회사의 대표이사다.

그의 조상들이 대대로 살아온 시마네현은 한자의 뜻풀이는 ‘섬의 뿌리’가 된다. 곧 섬나라 일본의 뿌리가 되는 곳으로 해석될 수 있다. 특

히 이 지명이 한국인들에게 익숙한 것은 자기들 이름으로 ‘다케시마(竹島)’라고 하는 독도가 바로 시마네현에 속하는 것으로 인구에 회자되기 때문이다(일본인들이 대나무 한 그루 없는 바위섬인 독도를 무슨 뜻으로 다케시마(竹島)라 하는지 모를 일이다).

시마네현의 현도는 마츠에(松江)다. 고마츠 이

사장의 이름에 마츠(松)가 들어 있는 건 그가 마츠에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운명적 관계를 설명하는 듯하다.

전통적으로 일본인들은 나무 중에 소나무(松)와 대나무(竹)를 국목(国木)처럼 선호한다. 사람 이름이나 지명에 松(마츠)과 竹(다케)은 약방에 감초만큼이나 많이 쓰이고 있다.

필자는 6년 전 마츠에를 두 번 방문한 적이 있다. 순전히 고마츠 이사장을 만나기 위해서였다.

松江(마츠에)의 이름에 걸맞게 그 도시는 흡사 물에 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도시의 규모는 인구로 보아 20만 명쯤 되는 중소도시였지만 도시라기보다 하나의 그림 같은 휴양지 같은 분위기가 물씬했다. 특히 바다와 강이 조우하는 기수(汽水)지역이란 특성이 이 예쁜 물의 도시를 더욱 매력적으로 느끼게 했다.

필자는 지금까지 일본의 크고 작은 도시를 포함해 30여 곳을 둘러보았지만 松江만큼 감명을 주는 곳은 없었다. 어느 곳에서도 물과 소나무를 볼 수 있는 그곳이 더욱 아름답게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것은 고마츠 아키오란 괴짜 때문이었는지도 모를 일이다.

작달만한 키에 왜소하기 조차한 이 괴짜 사나이에 대해서는 이미 6년 전 '시민시대'에 소개한 바 있어 기억의 끈이 팽팽한 독자들 중에는 각인되어 있을 줄 안다.

필자가 고마츠 이사장과 인연을 맺은 것은 3년 전 세상을 떠난 이정석 선생의 소개로 이루어졌다. 선생은 목요학술회 회원으로 필자에게 많은 도움과 지도를 해준 은인이었다.

선생의 일본에 대한 총체적 지식은 때때로 일본 지식인들을 압도할 정도로 탁월했다. 선생이 고마츠 이사장을 소개한 까닭은 그의 유별난 한국에 대한 관심과 행동이었다.

무엇보다도 그는 과거 일본인들이 한국인들을 괴롭히는데 대하여 사과하고 조금이라도 그에 대

한 보상을 하고자 독립기념관, 백범기념관, 안중근 의사기념관 등을 찾아가 헌화하고 성금을 기탁하는 행위를 서슴치 않았다.

최근(5월 초순)에는 유럽의 네덜란드 헤이그로 날아가 독립지도자 이준 열사의 기념관을 찾아 머리를 숙이기도 했다. 그리고 과거 일본의 폭력이 한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체의 평화를 유린하고 수많은 인민들에게 불행을 안겨준 과거사를 단순히 반성하고 보답하는 한시적인 것으로는 이 지역의 항구적인 평화를 담보할 수 없다는 생각에서 국제적인 평화운동에 나선 것이다.

고마츠 이사장의 이 같은 행동을 지켜보고 평가한 故 이정석 선생은 필자를 비롯해 많은 사람들에게 그를 알리는 일에 앞장서곤 했다. 고마츠 사장을 취재한 이후 지난 6년 여간 거의 1년에 한 번 꼴로 만나곤 했는데 3년 전 목요학술회 창립 30주년 때에는 기꺼이 부산을 찾아 축하를 해주기도 했다.

필자가 이번 호에 그와의 대담 기사를 게재하게 된 것은 지난 6월 14~17일까지 부산BEXCO에서 개최한 국제식품산업전시회에 그의 회사가 참여한 것을 계기로 6월 16일 부산을 방문한 후 여수EXPO를 관람할 일정이 필자에게 알려진 것이 계기가 되었다.

그런데 필자는 그의 부산방문 일정에 제주 일정이 있었지만 취소하고 그의 부산 일정에 함께하기로 했다. 그런 후 일정을 하루 앞당겨 6월 15일 부산을 방문할 수 없는지 의향을 물었다. 이유는 그날 오후 6시 '시민시대'의 발행처인 목요학술회가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임진왜란 420년을 맞아 국내 최고의 이순신 장군 연구가인 헌법재판소의 김종대 헌법재판관이 쓴 「이순신, 신(臣)은 이미 준비를 마쳤나이다」의 출판을 기념하고 저자의 강연회를 개최하는 자리에 고마츠 이사장의 참여가 큰 의미를 가질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 자리에 그의 참여는 그에게도 큰 정보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한 것은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화한 역사는 꺾고 있었지만 풍신수길의 지휘한 임진왜란의 역사와 임진왜란을 승리로 이끈 세계적인 영웅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다행스럽게 이사장은 필자의 요청을 수락하고 하루 먼저 입국했고 오랜 가뭄을 해결시키는 단비를 맞으며 행사장에 도착해 주었다.

이튿날인 6월 16일 오후 필자는 그를 해운대 동백섬으로 안내했다. APEC정상회담 장소인 '누리마루'를 소개하는 것은 아시아의 평화를 위하여 노력하는 그에게 어떤 영감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해서였다. 그리고 경관이 빼어난 해운대의 상징이면서 대한민국 최고의 Walking 순환코스를 거닐면서 대화를 나누는 것이 한층 의미가 있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통역은 본지 성현정 기자가 맡았다. 대답은 그가 최근 몇 년 동안 지금까지의 '평화운동'에서 '和(화)의 문화' 운동으로 보다 본질적이고 광의적인 평화운동으로 변화를 꾀한데 대하여 초점을 맞추었다. 다음은 그와의 대답내용이다.

인간자연과학연구소 설립 배경과 활동

Q1. 이사장께서는 20여 년 전부터 국제적으로 평화운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정치인도 아니고 사회운동가도 아닌 기업인으로서 평화운동에 뛰어든 특별한 동기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A. 공업고등학교 기계과를 졸업 후 8년간 농업기계연구개발에 종사하며 떠오르는 생각들을 연역법·변증법·귀납법을 사용하여 꿈을 실현하는 방법을 몸으로 터득하였습니다. 제가 26세였을 때 그 회사가 도산하여, 1개월간의 좌선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과 죽은 후의 일도 상정하여, 인생의 스토리를 생각하는 사고회로를 얻게 되었습니다. 2년간 오사카에서 소규모 비

즈니스의 실전을 배운 후 1973년 28세에 태어나고 자란 시마네현에서, 동생과 둘이서 펌프수리와 전기기기 조립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그 지역에 1개사 밖에 없었던 제어반과 분전반 사업을 하는 기존회사를 경쟁의 목표로 하여 힘을 합하여 서로 선두를 다투며 노력한 결과로 오늘의 기업을 만들었습니다. 이후 32세에 처음 해외여행으로 계엄령 하의 한국에 왔습니다. 야간합승택시에서 제가 일본인이라는 것이 원인이 되어 말썽에 휘말렸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 방위청 관료였던 海原治(카이바라 오사무) 씨로부터 「명성황후암살사건과 칠탈(七奪): 일본이 한국에서 뺏은 일곱가지. 즉, 주권, 국왕, 인명, 국어, 성씨, 토지, 자원」의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만, 앞의 사건과 명성황후암살사건에 대해 알게 된 일 이 두 가지 일이 이후 저의 인생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사회 인프라의 변화를 순풍으로 하여, 몸 크기에 맞는 사회문제를 경영자원으로 하여 인재, 자금, 첨단기술을 투입하여 고속자동문 門番(문반)과 종합물관리시스템 야쿠모 水神, 두 가지의 환경사업을 일으켜 시장을 창조하고, 제품을 브랜드화하여 그 수익으로 사원교육과 연구소의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Q2. 이사장의 평화운동에는 재단법인 인간자연과학연구소가 중심이 되어 왔습니다. 설립취지와 사업, 그동안의 사업실적을 소개해 주십시오.

A. 1988년, 「知」로써 사회를 개혁하는 시대가 올 것을 예감하고 「지혁숙(知革塾)」을 설립하였으며, 1994년 인간으로서의 존엄이 추궁되고 있는 일본인이 미래의 전망을 개척하는 스토리를 그려내기 위해서 인간자연과학연구소를 만들었습니다.

3년 여의 준비 후, 1997년 일본인으로서의 처음으로 한국의 독립기념관에 미래를 개척하기 위



▲ 2012년 6월 15일 목포학술회가 주최한 「이순신장군」 관련 책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고마즈 이사장과 저자 김종대 헌법재판관(가운데)

해 사죄·헌화·기부를 하고, 그 취지서를 전달하였습니다. 이후 한국과 중국, 미국, 러시아 유럽 등의 「전쟁과 평화박물관」에 공식 방문과 연구방문을 계속해 왔습니다. 또 제 고향 시마네현의 치수의 위인 ‘스토야헤에’ ‘清原太兵衛(키요하라타헤에)’ ‘大梶七兵衛(오오카지시치베에)’의 소설·아동문학·만화를 출판하고, 기념심포지엄을 개최하였습니다. 중일전쟁 때 島根(시마네) 鳥取(돗토리)의 병사가 큰 재난을 안겼고, 일본 측도 괴멸적인 타격을 입었던 중국 山東省(산둥성)에 세워진 국공합작 기념관을 공식 방문하여 헌화와 기부, 그리고 취지서를 전달하였습니다. 중·일 외교정상화 30주년 기념사업으로써 공자, 맹자, 스토야헤에, 키요하라 타헤에 등 4개의 동상을 제작하였습니다. 그 중 공자와 맹자상은 돗토리현이 만든 일본 최고의 정원 연조원「燕趙園」에 건립하였습니다. 그 이후 일본 七福神(칠복신)의 원류라고 전해지는 팔선인(八仙人)과 서왕모(西王母)의 대리석상 건립을 지원하였습니다. 더불어 손자(孫子)의 고향 중국 동영시로부터 지금까지의 활동을 높이 평가받아 손자의 동

상을 받게 되어 함께 건립하였습니다. 3인의 치수의 위인에 대하여는 한국에서 진행되는 4대강 개발사업에도 전달될 수 있는 메시지가 있다고 하는 의견에 따라 김현철 선생의 지원으로 서울 지사 설립을 기념하여 한국어판 만화로 출판하였습니다. 이후 「국민일보」에도 특집기사가 게재되어 블라디보스톡과 동해의 사카이미나토(境港) 사이를 운항하는 배 안에서도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88년 본사공장 준공을 기념하여 중국의 「전세장서傳世藏書」전 123권을 시마네대학(島根大学)에 기증하고 1999년, 연구소의 이론을 체계화한 「태양의 나라 이즈모(太陽の國IZUMO)」를 출판하고, 2002년 「일중영대역는어」, 2008년 「중일한영대역일본고전명언록」, 2011년 「조선반도와 일본열도의 사명(朝鮮半島と日本列島の使命)」의 편찬, 국제심포지엄의 개최, 그리고 활동내용의 영상기록을 만들어 대립과 통합에 의한 발전의 사이클 「和의文化」가 생성되는 “공감의 플랫폼”을 만들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평화활동가로 보여지는 원인이자 합니다.



▲ 2007년 3월 안중근 의사 순국기념식 참석 후 명성황후 생가를 방문한 고마츠 이사장(왼편 세 번째)

Q3. 아주 의미있고 인상적인 활동을 많이 펼쳐 왔군요. 그런데 최근에는 그동안 일관되게 추진한 평화운동이 ‘和의 운동’으로 보다 깊고 넓게 업그레이드 된 것 같은 느낌을 받았는데요. ‘平和’와 ‘和’는 언뜻 보기에 비슷한 것 같습니다만 굳이 ‘和의 文化’를 강조하시는 까닭은 무엇인지요?

A. 핵 억지력의 효과가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전세계적 금융혼란이 「信」의 붕괴 연쇄현상을 불러 일으켜, 인류가 만들어온 모든 조직은 내부 붕괴나, 아니면 진화를 향한 새 발걸음을 내딛느냐의 분기점에서 있습니다. 저는 사업과 연구소의 활동을 통하여 국제사회 속에서 공감의 플랫폼 「平」을 만드는 프로세스에서 「信」을 만들어내고 대립·통합·발전을 반복하여 「和」가 생겨나는 환경을 마련해 왔습니다.

인류가 불을 얻게 되고, 불은 화약, 다이내마이트를 지나 핵에 이르게 되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투하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동서냉전시대를 지나 미국과 러시아, 중국 등 3

대 핵 대국과 기타 많은 핵 보유국과 준 핵 보유국이 생겨났습니다. 또 원자력 발전소는 전세계에서 가동되고 있습니다만 스리마일섬 체르노빌에 이어 심각한 후쿠시마 원전사고까지 일어나 전세계에서 가동 중이거나 건설 중, 또는 계획 중인 원자력발전소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또, 언어의 발달은 문자와 인쇄, 그리고 스마트폰, 태블릿단말기, 클라우드컴퓨팅 시대를 맞아 정보의 공유화가 전세계적 규모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인류의 생활기반인 의식주는 국경을 초월하여 분업이 진행되어 되돌릴 수 없는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인류의 긴 역사 속에서 3대 핵 대국의 결정적인 「일본열도와 조선반도」에 인류의 진화와 존속을 위한 공감의 스테이지를 만들어 미국의 스마트파워, 중국의 「화해 和諧」 한국의 「화쟁 和諍」, 일본의 「화양」으로부터 예지를 빌려 참된 「和」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견식과 지혜와 용기, 그리고 행동력이 시험되고 있습니다.

‘和’는 중용의 삶에서 확대되는 나선운동

Q4. 和의 문화에 대한 이사장님의 이상과 철학을 읽을 수 있을 것 같군요. 일반적으로 유교나 불교문화권에서 ‘和’는 가장 인간적이며 보편적인 가치로 생활 속에 깊이 베어있어 결코 낯선 개념이 아닙니다. 일본에서의 ‘和의 文化’를 보다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A. 칸트의 『인류는 평상의 상태가 전쟁상태이다. 그러므로 평화는 창조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말은 시사하는 바가 큰 말입니다. 이것은 제 사견입니다만 「和」는 공감의 무대 「平」의 상위에서 대립·통합·발전을 반복하는 과정으로 정지상태가 아닌 중용의 삶에서 확대되는 나선운동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재였던 弘法大師 空海(코우호우다이시 쿠우카이)는 1100년 전에 중국에서 「진언밀교」를 일본으로 가져와 교토의 東寺강당에 입체만다라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고 「인류는 처한 환경에 따라 한없이 악마에도, 또는 천사에도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상당한 다양성을 가진 생명체」라고 느꼈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간격을 긍정적으로 활용하여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지면 모든 것은 윤리적으로 해결되고 희망이 샘솟는 미래를 그릴 수 있다고, 글로벌화한 세계에 있어 3대 핵대국에 둘러싸인 조선반도와 일본열도가 긴인류의 역사 속에서 세계로 뻗어 가는 「和의 문화」를 생성시킬 수 있는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지역이라는 확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Q5. 이사장께서 밝히신 ‘和의 문화’를 창출하는 인간자연과학연구소의 프로젝트 구상에서 인류가 당면한 현상을 대립양상으로 진단하면서 인류사회의 새로운 진화를 위해서는 ‘和의 文化’가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아주 적절한 진단으로 생각되며 처방 또한 옳은 것 같습니다. 그렇

다면 인류사회의 새로운 진화를 위한 ‘和의 文化’의 구체적 실현방안은 무엇인지요?

A.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것은 만고의 정의다. (合成散敗萬古定理)

번영의 끝에서는 쇠퇴의 싹이 돋지만, 쇠퇴의 끝에서는 번영의 싹이 돋지 않는다. (繁榮の極みに衰退の芽は生じ, 衰退の極みに繁榮の芽は生ず)

일본에서 오랜 생활 속에서 원함과 원망을 품고 사는 사람, 혹은 체념과 무관심한 체 살아온 사람, 거꾸로 그 입장을 긍정적으로 활용하여 경제적 사회적으로 큰 성공을 이룬 사람, 지금부터 그것을 기회로 하려는 사람, 일본에는 40만 명에 이르는 특별영주권을 가진 재일한국인과 재일조선인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북한의 국민과 일본국민이 함께 중국, 러시아 그리고 미국의 이해를 구해 세계적인 「和의 文化」를 창출해야 할 역할이 돌아왔다고 확신합니다. 그 구체화의 출발점은 오키나와, 센카쿠제도(尖閣諸島), 대만의 해협, 독도를 중심으로 한 일본해, 북방영토에 있습니다. 그 시기는 지금입니다. 사용 후의 핵연료의 재처리계획이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겹쳐있지만 이것이 실패하면 국가민족의 붕괴만이 아니라 인류붕괴의 도화선이 될 수도 있으며 역사상 유례없는 큰 죄를 범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일본은 아시아 여러나라로 부터 역사문제로 얽힌 지적을 받고 있다

Q6. 그리고 일본 주변의 ‘和의 문화권’으로 오키나와, 센카쿠 열도, 대만의 해역과 독도를 중심으로 한 일본해 등을 언급했는데 이는 너무 일본 위주의 ‘和의 文化’를 위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점과 또 한편으로 ‘和의 文化’의 필요성이 일본에 의해 야기되고 있음을 시인하는 것으로도 이해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悼念侵华日军南京大屠杀30万同胞遇难70周年暨
侵华日军南京大屠杀遇难同胞纪念馆扩建工程竣工仪式



▲ 2007년 7월 남경대학살 기념관 포럼에 참가한 고마즈 이사장

A 「和의 문화권」은 결코 일본본위에 의하여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본이 처음으로 内政化(식민지화) 한 곳은 메이지 유신의 류큐처분으로 인해 생긴 오키나와 현입니다.

또 오키나와는 전쟁 이후 미국의 시정화(施政化)에 들어가 한국전쟁, 베트남전쟁의 전초기지가 되고 일본환원 후에도 미국의 중추기지로써 중동을 포함한 많은 전쟁과 평화에 관계해 왔습니다.

일본열도가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 센카쿠열도, 대만의 해협, 북방영토문제, 독도/다케시마를 중심으로 한·일본해를 둘러싼 한일간 그리고 일본과 북한의 문제, 한국과 북한간의 긴장에 의한 조선반도의 문제, 이 모두가 해당국가간뿐만 아니라, 세계를 내다보는 인류사적인 시점에서 생각하고 인류의 미래를 개척하는 찬스를 우리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세계는 금융경제의 막다른 상황, 핵확산, 방사능, 분쟁, 자살, 「내성균(耐性菌)」의 발생과 면역력의 저하로 인해 다발하는 암과 만연하는 바이러스 등으로 곤란한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한 시대배경 속에서 일본은 한국, 중

국과 기타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로부터 과거의 역사문제에 대해 엄한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일본인으로서 20여 년에 걸쳐 가해 측의 전후 책임을 수행하기 위하여 저를 단장으로 방문단을 결성하여 과거 내정간섭을 했던 나라와, 교전을 했던 나라에 사죄하고, 인과관계와 그 배경을 여행을 계속하면서 『和의 文化』의 흐름을 만들어 낼 무대를 만들어왔습니다.

Q7. 먼저 오키나와의 경우 그들에게 희생을 강요하고 고통을 안긴 역사는 오로지 일본에 의해 저질러진 만행의 결과이며 독도의 경우도 일본의 무리한 영토확장의 아욕에 따른 결과로 역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힘으로 한반도를 침략하지 않았다면 독도 문제는 일본이 주장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 이사장님의 독도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A. 인류는 지금부터 세계적인 「信」의 붕괴로 인해 곤란한 시대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독도 문제, 동해/일본해 호칭의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 대한민국, 북한 3개국의 견식을 평가받는 문제로서 인류사의 평가에 세계의 분쟁지대에 희망

과 용기를 불어넣는 사례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 세계와 함께 살아가야 할 것을 숙명으로 하는 일본과 대한민국, 북한이 반드시 해내지 않으면 안될 것이며 국민국가인 일본과 한국에서 국민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논의의 장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고 확신합니다.

일본과 한국에서도 자주 사용되는 『고유의 영토』라고 하는 표현에 대해서는 약간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국가의 시대에 이르러 경위와 현상으로부터 미래를 내다보고 관계국의 승인에 의해서 영토를 확정시키는 것입니다. 고유의 영토는 세계 어디에도 없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저의 고향이며 또한 회사의 본사가 있는 시마네현에서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할 때에는 숙려한 끝에 찬성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역사, 독도/다케시마문제, 동해/일본해 바다의 호칭문제로 대립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첨단기술과 시간과 공간의 간격을 활용하여 대립의 에너지를 통합의 에너지와 함께 대립 통합 발전을 반복하는 「和의 문화」를 창출할 수 있는 시기가 왔다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Q8. 독도 문제는 역사의 관점에서 보아야 답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기회가 되면 독도문제만 가지고 깊은 대화를 나누어야 할 것 같습니다. 화제를 바꾸어 슬픈 역사의 섬 오키나와에 '국제평화센터'의 창설을 비롯하여 근대 전쟁의 모든 희생자를 기록하는 '메모리얼 타워'의 건립, 세계의 전쟁과 평화에 관련된 사진과 영상을 볼 수 있는 '세계평화·전쟁기념관'의 건설, 평화회의, 평화 공헌자를 발굴하여 널리 알리고, '和의 문화창조 올림픽' 등을 개최하는 '和의 전당' 건설 등을 이사장께서는 제안했습니다.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입니다. 실현될 수만 있다면 인류의 평화증진에 대단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

각됩니다. 문제는 어떻게 실현시키느냐가 중요한데 이사장께서는 구체적인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A. 오키나와는 비극의 섬인 동시에 기지로서의 섬으로서 전세계에 비극을 초래한 두 가지 측면을 가진 섬입니다.

이 섬에 일본, 미국은 물론이고 전세계 사람들의 미래를 개척할 「知」의 시설을 만드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일본인과 재일한국인, 조선인들이 서로 얘기를 나누기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요?

인류이익이라고 하는 목적을 기본으로 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로 이루어진 집단이 생긴다면, 「사람과 사물, 자본이」 모이는 발전의 사이클이 이루어집니다.

「제로로부터의 창조」를 지향하는 이 프로세스는 21세기의 가정, 회사, 국가, 인류사회 등 모두 본질은 같은 것으로서 지속 가능한 새로운 커뮤니티를 구상하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오키나와 음악을 연구하는 사람들 속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는 사람이 계속하여 늘어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무기대신 샤미센을 손에 든 류큐(琉球)라는 왕국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나폴레옹이 듣고 「다음에 태어날 때는 그런 나라에서 태어나고 싶다」라고 했다는 일화가 있다고 합니다. 「만나면 형제」라고 하는 말은 오키나와에서 지금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인연이 있어서 네덜란드 헤이그에서의 강연을 계기로 「평화를 위한 박물관 국제 네트워크」이 사회의 통괄디렉터 피터반 덴듀겐박사로부터 노벨의 비서였으면서 여성노벨평화수상자 제1호인 베르타 즈토나여사의 기념관건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이 기념관을 오키나와에 세울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지금은 초안은 다듬는 단계입니다. 그것에 앞서 즈토나의 흉상을 제작

하고 스토나전을 오키나와에서 개최하고자 관계자와 협의 중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핵 대국인 미국, 러시아, 중국 뿐이 아니라, 전세계의 어린이, 여성, 紳士(識者)에게 지속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이러한 흐름이 이루어진다면, 한반도 뿐만 아니라 세계 또한 새로운 시대를 향해갈 수 있지 않을까요.

잘못된 과거에서 和의 文化 창출 필요

Q9. 이사장께서는 '和의 文化' 창출에 있어 인류전체 보다도 우선 한반도·일본·중국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현재 이 3나라 간에는 영토, 과거사 문제가 날줄 씨줄로 엮여져 있어 솔로몬왕의 지혜로도 풀기 어렵게 난마처럼 헝클어져 있습니다. 한·일간의 독도, 위안부, 강제징용, 문화재 환수 문제가 있고, 일·중간에는 영토문제와 일·청전쟁 이후의 보상문제 등이 걸려 있습니다. 문제는 3나라의 和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할 일본의 사죄와 그에 따른 법적, 인간적 보상입니다. 일본은 전쟁이 끝난지 67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자신들이 저지른 잔혹한 범죄와 악행을 인정하지 않으려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도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사장께서도 잘 아시듯이 개인간의 관계에서도 극심한 갈등과 다툼이 있어도 서로 잘잘못을 가리고 잘못된 사람이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하면 화해가 이루어집니다. 바로 이 화해(和解)야말로 이사장님이 이루어 내고자 하는 '和'의 본질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지금이라도 일본과 일본국민이 한국과 중국이 납득할 수 있는 과거의 잘못에 대한 사과와 그에 대한 보상을 한다면 '和'는 일본의 모든 곳에서 분출하는 온천처럼 흘러 넘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이 잘못된 과거의 역사를 온천에서 말끔히 씻어낼 수 있다면 동북아시아는 물론 세계의 '和의 文化' 창출에 획

기적인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和의 文化' 창출에 혼을 쏟고 계시는 이사장께서는 먼저 일본 국내에서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잘못된 지난 역사에 대한 일본과 그 국민의 반성과 사과가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모든 노력을 집중하는 것이 '和'를 이루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이에 대한 이사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A. 100% 동감입니다. 저는 많은 재난을 남겨준 세대의 자손으로서 일본인으로 각국을 방문하며 전후 책임을 수행하는 출발점으로써 사죄를 해왔습니다. 6자회담국의 회원국인 대한민국, 북한, 일본 이 3개국에 관계된 모든 역사문제를 모두 테이블위에 올려놓고 보면 문제는 너무나 많이 산적해있고 분노와 한숨이 나올 것입니다.

그 산적한 문제들은 저는 「禍」라고 정의합니다. 「전화위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을 「전전, 전시, 전후 책임」 이 세 가지의 책임으로 나누어 기술혁신의 성과를 더하면 「福」 즉 「和」가 생성된다고 믿습니다. 지금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독도/다케시마, 동해/일본해 호칭문제, 위안부문제에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출발점입니다.

2011年 2月 22日 「다케시마의 날」에 발간한 「조선반도와 일본열도의 사명」에서도 기술하였습니다만 2008年 5月 한국방문 시 일본대사관 앞에서 80세를 넘은 위안부 할머니들의 일본에 대한 항의활동과 조우하고, 그 분위기와 그 집회가 이어져온 회수에 강렬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항의행동은 1,000회를 넘고, 위안부소녀상도 건립되어 미국에도 이미 2개의 비가 건립되었으며 이후에도 다수의 비가 세워질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이것은 한일양국과 민족의 붕괴로 이어지는 본질적인 문제로서, 일본은 말할 것도 없고 한국인의 견식과 지혜와 용기에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그녀들은 전쟁 중 엄청난 수난에



▲ 2010년 7월 고마즈전기 서울지사 개설 기념식에서 대한적십자사 서영훈 총재로부터 명예장을 수상하는 고마즈 이사장

의하여 「존엄의 생명」을 잃었습니다.

우리들에게 일본인, 한국인 또한 인간으로서의 자각이 있었다면 그녀들의 전후 오랫동안의 존엄의 생명을 되찾기 위한 활동을 방치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전쟁의 책임이란 전쟁을 미연에 막지 못한 전전책임, 전시책임, 그리고 전후 책임 이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전쟁 중 어린아이였던 세대 이후는 전전책임과 전시책임은 없습니다. 있다면 전후 책임이 있겠지요. 전전에 만들어진 철도 등 사회의 인프라는 이용하면서 타국과의 관계에서 생긴 원한과 원망은 뒷세대에 미루어 버리는 행위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전후 책임이란 전쟁에 이르게 된 배경, 전투행위, 그리고 현대사회의 문제를 조사 연구하여 그 성과를 재차 전쟁을 일으키지 않을 것과 항구평화를 이루는 자원으로써 활용해야 합니다. 일본인은 물론 풍요로워진 한국국민을 포함하여 지금을 살아가는 우

리들의 자손과 인류의 역사에 대한 사명입니다. 사죄와 배상은 그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발효식품은 방사능에 대한 면역력 증진

Q10. '和의 文化' 와 관련하여 핵과 방사능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후쿠시마 원전사고 때 방사능 재해와 그에 따른 면역력 증진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가운데 발효식품의 섭취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인간자연과학연구소가 첨단과학과 정보통신기술을 결합하여 방사능에 대한 면역력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발효문화의 선진화를 이끌겠다고 하는데 발효식품이 방사능에 대한 면역력을 증진시키는 근거는 무엇이며 발효문화의 선진화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A. 저의 오랜 지인인 미국 보스턴에 살고있는 마크로비오틱의 세계적인 지도자인 구보 (久司道夫)의 네트워크 「원·피스플·월드」의 일본대



▲ 2003년 10월 일본 돗토리 현의 중국공무원인 연조원에서 공자·맹자 동상 제막식에 참석한 고마즈 이사장(오른쪽 두 번째)

표 大場淳一氏에게 나가사키 원폭 의사의 기록이라는 부제가 붙은 『死의 同心円』이라는 책을 소개받았습니다. 그것에 따르면 나가사키 원폭 당시 피폭중심지로부터 1.8km 떨어진 곳에 있는 병원이 피폭당하였습니다만, 입원환자도 직원들도 피폭증상 등 방사능의 직접적인 피해로 인해 사망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의사는 직원들에게 「짚 된장국을 만들어서 매일 먹게 하도록 하라」고 지시했었습니다. 이 의사가 쓴 책이 영문으로 번역되어 구미(歐美)에서 판매되고 있고 체르노빌 원전사고 이후 유럽에서는 된장이 날개 달린 듯이 팔렸다고 합니다. 된장은 말할 것도 없이 발효식품입니다. 균, 결국 미생물은 다양각색으로 다양하며 인류는 아직 그 전모를 해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환경변화와 균의 조합에 대한 새로운 상관관계의 발견이 기대됩니다. 조선반도와 일본열도는 김치, 된장, 간장 등 발효식 문화의 전통이 이어져오고 있으며 발효에 적합한 독자적 기후풍토도 있습니다. 첨단기술의 성과와 전통의 노우하우를 활용하여, 또한 3개국에 대립하는 에너지를 활용하여 연구개발과 사업화를 추진하면 이 지역을

인류번영의 기초가 되는 면역력의 비약적 향상을 향한 발효식 문화의 선전기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0년의 벵쿠버올림픽에서의 김연아와 아사다 마오의 활약은 우리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었습니다. 시마네현에서 2012년 7월에 열리는 매일 신문사 주최의 전국농업공구 전국대회에서 그 구상을 발표할 것입니다.

Q11. 또한 인간자연과학연구소는 세계적인 식량위기를 대비하여 ‘일본해=동해해양목장’을 제안했으며 이 해양목장의 중심에 있는 독도를 ‘와의 문화권’ 발상지로 하기 위해 ‘일본을 포함한 조선전쟁 관련국의 민족색 풍부한 여성과 아이들의 군상(群像)을 건립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사장께서는 독도를 일본해에 속한 것으로 단정하고 있는데 무언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요. 만일 독도를 일본해에 속한 것으로 알고 계신다면 앞으로 한·일관계 뿐만 아니라 이사장님 개인에 대한 한국민의 인식에 엄청난 파장이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이사장님의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A. 「다케시마/독도에 일본을 포함하여 조선전쟁에 참전한 모든 관계국의 민족의상을 입은 여

성과 아이동상을 건립하여 인류사회의 미래를 여는 섬으로~"라고 1999년에 제안하였습니다. 또 2002년에 일본해/동해 호칭을 「中海」로 제안하였습니다만 계속 무시되어왔습니다.

독도/다케시마 문제와 수상의 아스쿠니 신사 참배를 계기로 중국에서는 상해에서 항일운동이 일어나 세계적으로 어려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을 때 다케시마, 센카쿠제도, 북방영토까지 세 가지 영토문제의 분류가 시작되었습니다. 일본도 한국도 서측사회의 일본으로서 은혜를 입어 오늘의 번영을 이루었습니다. 북한에서는 한국에서 보면 동포, 일본에서 보면 전쟁책임과 전후 책임에 관련된 분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문제는 당사자간은 물론 인류사회를 위해 활용하는 것이 지금을 살아가는 관계국민의 세계에 대한 전후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케시마와 독도문제, 동해와 일본해 호칭문제는 공개된 장소에 대화를 하지 못한 것이 최대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다른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론은 스스로 나올 것입니다.

헤이그의 이준 평화기념관 방문

Q12. 이사장께서는 지난 5월 3일 네덜란드의 헤이그를 방문, 그곳에 있는 한국의 독립지도자 이준 열사 기념관에 들러 헌화하고 안중근 의사의 '독립의 서' 복사본을 기증했습니다. 일본인의 이준 열사 기념관의 공식방문은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아주 어려운 여행을 하셨는데 특별히 이준 열사 기념관을 찾은 뜻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A. 2012年 5월에 국제사법재판소가 있는 헤이그에서 개최된 「평화를 위한 박물관 국제네트워크」이사회에서 강연하였습니다. 그 곳에 있는 이준평화기념관에서 이기항 원장을 방문하고 「獨立」이라는 서예의 필사본을 전달하였습니다. 거

기에게까지 이른 경위는 2008년 10월에 교토에서 열린 제6회 국제평화박물관회의에 안중근의사기념관 김호일관장, 이혜균 총무부장, 송석원 경희대학교 일본연구소장을 당 연구소가 초대하여 그 당시 안중근의사의 유묵인 「獨立」을 포함하여 몇 점이 일본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한국에서 그 유묵이 전시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것이 그 시작입니다.

안중근 의사는 여순에서 한국, 일본 등 각각의 독립에 의해서 동양에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글로벌화가 진행된 현대에 있어서는 3대 핵 대국인 중국, 러시아, 미국의 이해를 구해 북한, 대한민국, 일본 3개국이 세계의 기대를 짊어지고 항구평화의 흐름을 만들어내는 특별한 역할을 해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Q13. 사실 한반도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이며 '不和'의 중심지역입니다. 한반도의 분단과 분쟁에는 일본의 책임이 큼니다. 그러나 일본은 책임을 통감하기는커녕 한반도의 분단상황을 즐기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이사장께서는 일본 지도자의 한 사람으로 한반도 통일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일본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이 질문은 이사장께서 추진하시는 '和의 文化' 창출에 가장 핵심되는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A. 조선반도의 분단, 또 조선전쟁이 발발하기까지의 경위에는 일본에 큰 책임이 있습니다.

일본, 대한민국, 북한 등 3개국이 중국, 러시아, 미국의 협력을 얻어 각각의 특징을 활용하여 전세계에 평화를 만들어내는 것. 이것은 조선반도의 통일이 되기 전이어야만 가능합니다. 고난의 역사를 건다가 돌아가신 많은 분들의 자손에 대한 현재를 살아가는 관계국민의 의무와 책임입니다.



▲ 독도에 건립을 제안하는 지구공생 인연맺기의 동상 조감도

Q14. 이사장께서는 지난 20여 년간 일본의 양심으로서 일본의 국익이나 정서에 반하는 거침없는 언행으로 일본 국내에서 비난과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과 관련하여 많은 에피소드가 있을 것 같습니다.

A. 글로벌 시대에 있어서 국익이란 인류의 이익과 국민이 노력하면 「人間」이라고 하는 인식을 확립할 수 있다는 것과 모순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 필요 불가결한 것이 아닐런지요? 저의 활동이 가끔 인터넷상에서 화제가 되기도 합니다만 위해를 당하거나 한 적은 없습니다.

2008년에는 연구소에 인턴 십 직원으로 한국에서 온 여학생을 채용하여 「다케시마의 날」전에 심포지엄을 개최하였습니다. 2009년의 「다케시마의 날」에는 6자 회담참가국의 국기를 걸고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우익의 거리 선전용 차에 에워싸인 중 경찰이 보호해주는 가운데 700명이 참석하였습니다. 그때 상영한 안중근의사의 영상은 큰 감동을 불렀습니다. 참가자는 시마네현이 마련한 공식행사보다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전국 일간지의 제1면에도 보도되어 많은 관심을 끌었습니다.

2010년에는 「日本海=東海를 둘러싼 朝鮮·

韓国·日本에서 세계평화를」이라고 하는 심포지엄을 여성을 중심으로 개최하여 연구소가 이 행사를 후원하였습니다. 재일조선인들로 구성된 조선가무단의 노래와 무용 공연 이후 모임에 참가한 전원이 손에 손을 잡고 춤을 추기도 했습니다. 회장 안에는 몇 명의 우익으로 보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만 손을 맞잡고 함께 춤의 대열에 들어왔습니다. 여성에 의한 기획으로 인한 신선함이 참가자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게 했습니다. 이 경험은 프로젝트의 진전에 밝은 전망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일본의 6천여 곳에 종합물관리 시스템 사업

Q15. 끝으로 지금 경영하고 계시는 사업을 소개해 주십시오.

A. 일본의 293개 지방자치단체, 6,000개소의 시설도입 실적을 가진 클라우드에 의한 종합물관리 시스템 야쿠모수신「やくも水神」으로 세계 평화의 플랫폼 구축의 일익을 짊어질 만들어 내도록 현재 중국, 한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6월 21일 영업기획본부장이 중국의 수리부(한국의 수자원공사와 같은 조직)를 방문하여, 실무책임자를 비롯하여 JICA의 관계자들과의 모임에서 야쿠모 水神「やくも水神」시스템의 금후 중국진출의 가능성에 대하여 대화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중국에서 엄청난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분야로서 가까운 시일 내에 프레젠테이션을 계획하고 앞으로도 협력해나가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올해는 일중국교정상화 40주년의 해입니다. 중국산동성, 국공합작의 땅에서 야쿠모 水神「やくも水神」의 브랜드명의 유래인 치수의 위인스토야해에의 동상을 제작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6월 25일가와노, 현지법인 코마츠코리아의 간부사원들이 한국수자원공사를 방문, 주임연구원을 비롯한 10여 명의 관계자들과 미팅을 하였습니다. 한국은



▲ 2012년 5월 3일 헤이그 이준 열사 기념관장에게 안중근 의사 독립필사본을 전달하는 고마츠 이사장

소규모수도시설의 감시시스템이 아직 미비하여 야쿠모 水神 「やくも水神」시스템의 도입을 검토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후 인적 교류를 포함하여 많은 면에서 관계를 유지해나갈 것을 합의하였습니다. 일본에서 시장창조에 성공한 門番(스피드 자동차)사업은 2010년 현지법인 코마츠코리아를 설립, 4회에 걸쳐 서울과 부산의 전시회에 출전하여 자동차 기계 전자 출판 물류 의약 식품업계의 많은 분들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그 결과 서울뿐 아니라 부산과 경상도 지역으로부터도 당사의 경영이념에 찬동한 대리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클라우드 컴퓨팅, 스마트폰 시대를 맞아 시민 시대와 부산의 여러분과 함께 「門番」과 「水神」의 사업뿐이 아니라, 발효식품과 무역 등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구축에 임하고자 합니다.

고마츠 이사장은 일본의 진정한 애국자


필자는 고마츠 이사장과 인터뷰를 끝내면서 이 사람이야말로 가장 일본적인 사람이며 누구보다도 일본을 사랑하는 애국자라고 생각했다.

개인적으로도 자기자신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나 자신감 없이는 남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건 쉽

지 않은 일이다. 하물며 자기의 고향, 자신의 나라에 대한 사랑과 충성없이 이웃 나라에 따뜻한 관심을 가지고 행동에 옮길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1980년대 초부터 시작된 그의 한국에 대한 관심과 행동은 한·일 두나라 간의 특수한 역사관계를 이해하고 그러한 역사인식을 바탕으로 전개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오랫동안 그와의 교류에서 느낀 것은 남다른 역사인식과 문화의식이었다. 그의 투철한 역사관은 인간자연과학연구소를 소개하는 표제에 선명하게 표출되고 있다. '역사에 어두운 사람은 현재에 있어서도 어둡다' 고 갈파한 독일의 <바이츠제커>의 경구와 독일을 독일답게 만든 철인 재상 <비스 마르크>의 다음 말을 올려 놓고 있다. '어리석은 사람은 경험을 통해 배우고 현명한 사람은 역사를 통해 배운다' 고...

고마츠 이사장이 이 명언을 첫 머리에 올려놓은 것은 아마도 자신들에게 불리한 역사를 철저히 왜곡하고 외면하고 싶어하는 가장 세계인답지 못한 일본인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이 아닐지 생각해 보았다.

인터뷰에 기꺼이 응해주신 고마츠 이사장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편집주간) 



뱀새라 불리는 붉은머리오목눈이



‘붉은머리오목눈이’라는 다소 긴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유명한 속담에 등장하는 바람에 ‘뱀새’라는 이름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다.

거기다 생김새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작고 가늘게 찌진 눈을 지칭하는 ‘뱀새눈’이라는 말도 있다. 이렇게만 보면 비호감 이미지가 강하다.

그러나 실제로 보면 인형인가 싶을 정도로 귀여운 모습을 하고 있다.

참새목 새들 중에서도 작은 종류에 속해서 한 손에 쏙 들만큼 앙증맞다. 거기다 ‘뱀새눈’이란 단어가 어울리지 않게 동그랗고 새까만 조그마한 눈이 부리 양 옆으로 콧 박혀있다.

어떤 사물이든 보는 방향과 각도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모습을 보이는데 뱀새눈도 마찬가지로 정면서 봤을 때는 눈이 찌져 보인다. 흔한 데다 별 특징 없는 새라 그런지, 찌진 눈이 강조되